

삼성·LG·애플...하반기 스마트폰 대전

삼성 다음달 미국서 'S펜' 확장한 갤럭시노트9 공개
애플 9월에 3종...LG V40·구글 픽셀3 10월께 선보여

다음 달 갤럭시노트9 공개를 시작으로 삼성전자, 애플, 구글, LG전자의 하반기 스마트폰 대전이 벌어진다.

스마트폰 시장 포화로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수요가 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제품이 하반기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지 주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달 9일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노트9를 전 세계 미디어, 파트너사에 공개한다.

갤럭시노트9는 노트 시리즈의 특징인 'S펜'의 사용성이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S펜은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해 음악을 재생할 때 리모컨으로 사용하거나 사진 촬영 시 셔터를 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펜 자체가 블루투스 스피커나 마이크로 사용되고, 종이에 S펜으로 글씨를 쓰면 화면에 옮겨지는 기능이 탑재된다는 예

상도 나온다. 작년 갤럭시노트8 공개시 일본 외곽에서 밝혀진 것처럼 S펜의 전자 서명이 개인인증에 사용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밖에도 갤럭시노트9는 배터리·화면 크기를 각 4천mAh, 6.4인치로 키우고 빅시비 2.0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9월에 5.8인치 아이폰X 후속모델과 6.5인치 플러스 모델, 6.1인치 LCD 아이폰 등 3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애플 전문가 사이 미즈라시가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 이들 제품의 더미(모조품) 모델을 보면 두 제품의 전면은 아이폰X와 유사하다. 베젤(테두리)을 극소화한 디자인에 안면인식 기능인 '페이스 ID'를 지원한다.

LCD 모델은 아이폰9으로 명명될 가능성이 높다.

LG전자 차기 전략 스마트폰 V40, 구글



LG G7씽큐

의 자체 스마트폰 픽셀3도 하반기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V40는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하고 전면 듀얼 카메라를 탑재해 총 5개의 카메라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V40는 전면 듀얼카메라로 3D 기반 안면인식 기능을 구현하고, 후면카메라는 표준 와이드렌즈, 울트라와이드(초광각)렌즈, 줌렌즈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 관측이 맞다면 세계 최초로 후면 트리플카메라, 전면 싱글카메라를 탑재한 화

웨이 P20 프로보다 카메라 수가 하나 더 많아진다.

이 밖에도 V40는 G7 씽큐와 마찬가지로 노치 디자인의 디스플레이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5.4인치 디스플레이인 픽셀3는 일반 베젤리스 디자인이, 6.2인치 디스플레이인 픽셀3 XL은 노치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품은 전자과 마찬가지로 10월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집배원이 시골 부모님 안부 살펴 드려요

전남우정청 '어르신 돌봄·용돈 배달' 서비스

전남지방우정청(청장 정진용)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안부를 집배원이 확인하는 '우체국 어르신 돌봄서비스'와 자녀들이 부모님께 매일 드리는 용돈을 현금으로 배달해 주는 '용돈배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돌봄서비스'는 집배원이 신청인의 부모님 댁을 주 1회 방문해 안부를 묻고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서비스다. 65세 이상 부모님이 대상이며 전국 어느 우체국에 서나 자녀가 신청하면 된다.

'용돈배달 서비스'는 우체국에 가입한 고객은 현금배달 서비스를 신청하고 배달할 날짜를 지정하면 현금을 인출해 집배원이 원하는 곳으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다.

우체국에서 예금계좌 자동인출과 현금배달을 약정하면 된다. 배달금액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문의 062-600-463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이통사 안 바뀌요

상반기 번호이동 월 50만건 ↓
보조금 경쟁 위축 탓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고객이 점점 줄고 있다. 올해 상반기 통신사를 바꾼 번호이동 건수는 약 13년 만에 처음으로 월평균 50만건 밑으로 떨어졌다.

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올해 1~6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의 번호이동 건수는 작년 동기보다 16.0% 줄어든 총 276만6022건으로 월평균 46만1004건에 그쳤다. 반기 기준 월평균 번호이동이 50만건을 밑돈 것은 2005년 하반기(45만3416건) 이후 처음이다.

월별로 보면 3월에만 가까스로 50만건을 넘었을 뿐 나머지 기간은 50만건을 밑돌았다. 특히 2월은 39만7616건으로 40만건에도 미치지 못했고, 4월(43만8448건)과 6월(45만1751건)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분기별 월평균 번호이동을 보면 1분기 46만6152건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45만5855건에 머물렀다. 2분기 역시 2005년 4분기(43만9404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012년 월평균 105만건에 달했던 번호이동 건수는 2014년 10월 이동사의 보조금 경쟁을 제한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후

■2018년 상반기 월별 번호이동 건수

1월	499,893
2월	397,616
3월	500,947
4월	438,448
5월	477,367
6월	451,751
총합	2,766,022
월평균	461,004

*자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50만~60만건을 유지해왔다.

올해 들어 이동사의 보조금 경쟁이 더욱 위축되면서 40만건대까지 떨어졌다.

여기에는 요금할인(선택약정) 확대 영향으로 통신사를 유지한 채 휴대전화만 바꾸는 기기변경 고객이 늘어난 점도 한몫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기변경 고객은 전월보다 6%, 작년 동월보다 21.6% 늘어난 92만7145명으로 번호이동(47만7367명)의 두 배에 육박했다.

번호이동 고객에게 더 많이 지급되는 보조금과 달리 요금할인이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 고객 모두에게 일괄 적용된다. 게다가 요금할인이 작년 9월 20%에서 25%로 오르면서 할인 폭이 지원금보다 커졌다. 고객 입장에서선 굳이 통신사를 바꿀 이유가 줄어든 셈이다. /연합뉴스



낙도 청소년에 미디어 진로탐색 기회 제공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비금도서
섬마을 미디어페스티벌 시즌6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박대식)가 오는 11일부터 3일간 신안 비금도에서 '섬마을 미디어페스티벌 시즌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섬마을미디어페스티벌은 미디어문화소외지역인 섬마을 청소년에게 방송 참여와 미디어·방송 분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 주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6회째 개최되는 '캠프형 미디어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신안 비금도 비금중학교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미디어캠프',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한여름 밤의 영화상영회', '비금도 해변 환경정화 캠페인' 등 3일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메인 행사인 '미디어캠프'는 청소년을 위한 영상제작캠프로 비금중학교 3학년

28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참가 학생들은 11일 입소식을 시작으로 PD, 작가, 감독 등 조별 역할분담을 통해 청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뉴스·단편영화 등을 제작하고 마지막 날인 13일에 시상식을 갖는다.

완성된 창작물은 지역공중파 및 케이블 채널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출품·방영될 예정이다.

섬마을 주민을 위한 미디어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11일에는 도초면 노인종합복지센터와 비금면 읍동 마을회관 어르신을 대상으로 손주에게 영상편지 쓰기 등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가 운영된다.

12일 오후 비금중학교 체육관에서는 '한여름 밤의 영화상영회'가 열린다. 위안부 문제를 다룬 웃음과 감동으로 다룬 영화 '아이 캔스피크' (2017) 상영으로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370광년 떨어진 우주서 행성 탄생 이미지 포착

독일 막스 플랑크 천문학연구소

별을 감싼 가스과 먼지 원반층에서 행성이 만들어지는 장면이 처음으로 생생한 이미지로 포착됐다. 가설로만 돼 있던 행성 탄생의 순간이 사진으로 확인된 것이다.

독일 막스 플랑크 천문학연구소(MPIA)와 유럽남방천문대(ESO) 연구원들은 지구에서 약 370광년 떨어진 캔타우루스자리 왜성(矮星) 'PDS 70'을 둘러싸고 있는 먼지와 가스로 된 원시행성 원반층에서 거대 행성 'PDS 70b'가 생성되는 장면을 포착했다며 과학저널 '천문학과 천체물리학(Astronomy & Astrophysics)' 최신호에 공개했다.

연구팀은 칠레에 있는 ESO 초거대망원경(VLT)의 행성 탐색장비인 스피어(SPHERE)를 이용해 별 나이가 1000만 년이 채 안 된 PDS 70의 원시행성 원반층을 집중적으로 관찰했으며, 그 결과 PDS 70b가 원반층 안에서 궤도를 돌며 여전히 주변 물질을 응집 중인 것을 확인했다.

PDS 70b는 질량이 목성의 여러 배에 달하고, 태양과 천왕성의 거리만큼 떨어진 궤도로 돌아 행성을 한 바퀴 도는데 120년이 걸리는 것으로 계산됐다. 행성 표면의 온도는 약 1200 K(섭씨 1000도)로, 태양계 행성 중 가장 뜨거운 금성의 평균 온도 737K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떨어져 있는데다 항성의 밝은 빛이 주변 행성을 찾아내는 것을 어렵게 해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원시행성 원반층에서 행성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관측이 몇차례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번처럼 생생한 이미지로 포착된 것은 처음이다.

연구팀은 칠레에 있는 ESO 초거대망원경(VLT)의 행성 탐색장비인 스피어(SPHERE)를 이용해 별 나이가 1000만 년이 채 안 된 PDS 70의 원시행성 원반층을 집중적으로 관찰했으며, 그 결과 PDS 70b가 원반층 안에서 궤도를 돌며 여전히 주변 물질을 응집 중인 것을 확인했다.

PDS 70b는 질량이 목성의 여러 배에 달하고, 태양과 천왕성의 거리만큼 떨어진 궤도로 돌아 행성을 한 바퀴 도는데 120년이 걸리는 것으로 계산됐다. 행성 표면의 온도는 약 1200 K(섭씨 1000도)로, 태양계 행성 중 가장 뜨거운 금성의 평균 온도 737K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MPIA 천문학자 안드레 필러는 성명을 통해 PDS 70b 관측은 "복잡하지만 빈약하게 이해되고 있는 행성형성 초기 단계에 대한 새로운 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행성 형성 과정을 이해하려면 젊은 별의 원반층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